2012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2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 자료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공부 방법'에 대한 글을 쓴다고 할 때, 이끌어 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옛 사람에게 배우다 - 퇴계 이황 편

<논어 공부>
내가 『논어』를 외운 비법은 하루에 배운 것을 모조리 외우고 다음 날에는 그날 배운 것과 그 전날 배운 것을 함께 외우는 것입니다. 나는 외우고 또 외우는 것이 뜻을 깨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공부>
나는 과거에 세 번이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공부하고 계속 도전해 마침내 서른 네 살 늦은 나이에 과거에 합격했습니다.

<아들에게 보낸 편지>
"만약 집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없다면 마땅히 의지가 굳은 친구와 같이 산사에 머물면서 굳은 결심으로 공부하여라."

<이이에게 보낸 편지>
"나중으로 넘기지 말고 순간순간 항상 공부해야 합니다. 점점 공부를 쌓아 무르익게 할 것이지 짧은 시간 내에 결과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평생 노력해야 합니다."

① 단기간의 성과를 기대하기보다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공부한다.
② 의지가 굳고 뜻이 통하는 공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중요하다.
③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반복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수업 중 배운 중요한 학습 내용을 뒤로 미루지 않고 공부한다.
⑤ 시험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한다.

2. <보기>는 지역 신문에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운동'에 관한 기사를 연재하기 위해 세운 계획의 일부이다. 개요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기획 의도 :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운동을 소개하고 실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
◇ 연재 계획
[1회] 세계 각국의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운동
✓**[2회] 우리나라의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운동**
[3회] 우리나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운동의 과제

◆[2회] 작성 계획
• 문제점 파악, 사례 소개, 의의 제시
• 전체 연재 기사와의 연계성 고려
◆[2회] 개요
1. 수입 농산물 증가에 따른 문제점
가.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확산
나. 지역 소규모 농가의 낙후된 생활 기반 시설
다. 장거리 운송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 증가
라. 패스트푸드의 고급화에 따른 가격 상승
2.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운동의 효과
가. 소비자와 농가를 직접 연결하는 직거래 장터
나.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친환경 학교 급식
3.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운동의 의의
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로 농산물에 대한 신뢰 확보
나. 지역 소규모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
다. 농산물 수출·입 경로 다양화
라. 환경 보호

① '1-나'는 상위 항목 '1'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지역 소규모 농가의 소득 감소'로 수정한다.
② '1-라'는 [2회]의 주제를 벗어나므로 삭제한다.
③ '2'는 작성 계획을 고려하여,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운동의 사례'로 고친다.
④ '3-다'는 연재 계획을 고려하여, [3회]에서 다루도록 한다.
⑤ '3-라'는 '1-다'를 고려하여, '운송 거리 단축을 통한 탄소 배출량 감소'로 구체화한다.

3. <보기>는 '매장문화재 보존'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매장문화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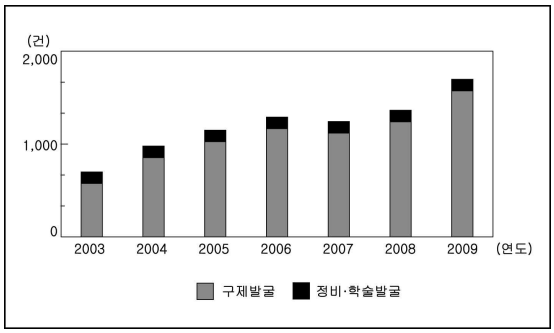
제1조: 이 법은 매장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계승하고,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1항: 누구든지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에서 …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3항: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그 경비는 …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 유존(遺存): 후세에 남아 보존됨. 또는 후세에 남기어 보존함.

(나)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현황



◦ 구제발굴: 개발사업에 의해 사라질 위기에 있는 매장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발굴.

◦ 정비·학술발굴: 유적지를 정비하거나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발굴.

(다) 개발사업 시행자 인터뷰 자료

"개발사업 지역에서 문화재가 나왔다는 건 저희에게 참 난감한 일입니다.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은 좋지만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동안의 각종 비용은 물론 발굴 비용까지 저희가 부담해야 합니다. 발굴 기간이나 절차, 비용, 그리고 사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을 때의 보상 등에 대한 협의가 잘 안 될 때에는 그냥 공사를 강행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① (가)의 제1조를 활용하여 매장문화재 보존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② (나)를 통해 개발사업과 관련된 매장문화재 발굴이 늘고 있음을 제시한다.
③ (가)의 제8조 1항과 (다)를 통해 매장문화재 보존을 위해 정부와 개발업자의 원활한 협의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④ (가)의 제11조 3항과 (다)를 통해 정부에서 발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⑤ (다)를 활용하여 (나)의 정비·학술 발굴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을 제시한다.

[4 ~ 5] 다음은 우리나라 궁궐을 소개하기 위해 작성한 초고이다.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궁궐은 왕실의 생활공간이기도 했지만 현실 정치의 중심이기도 했다. 그래서 조상들은 궁궐에 왕조의 정치적 이상을 드러내기 위한 장식물을 ㉠ 둔다.

그 예로 경복궁 광화문 앞에 있었던 '해태상'을 들 수 있다. ㉡ 이러한 해태상을 세운 것은 궁궐을 출입하는 관료들에게 경계하는 마음을 갖게 함으로써 투명한 정치를 꿈꾸던 조선 왕조의 정치 철학을 실현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해태는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을 뿔로 받아버린다는 상상의 동물이다. 그리고 경복궁의 근정전, 창덕궁의 인정전, 창경궁의 명정전 계단 중앙에는 '답도'라는 ㉢ 넓직한 돌이 박혀 있다. 여기에는 봉황이 새겨져 있는데 조상들은 봉황이 출현하면 훌륭한 왕이 태어나서 태평성대가 펼쳐질 것으로 믿었다. ㉣ 그러므로 궁궐에 새긴 봉황은 태평성대를 바라는 소망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궁궐에 담긴 다양한 의미를 통해 조상들의 희로애락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조선 왕조의 궁궐에 있는 다양한 장식물에는 정의롭고 태평한 시대를 실현하려는 정치적 이상이 드러나 있다.

4. 위 글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시간 표현이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두었다'로 고쳐야겠어.
② ㉡은 문장 간의 의미 관계를 고려하여 바로 뒤의 문장과 순서를 바꿔야겠어.
③ ㉢은 맞춤법이 잘못되었으므로 '널찍한'으로 고쳐야겠어.
④ ㉣은 앞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그런데'로 바꿔야겠어.
⑤ ㉤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해야겠어.

5. 위 글을 고쳐 쓴 후, '궁궐'을 홍보하는 문구를 작성하려고 한다. <보기>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은?

<보 기>

◦ 위 글의 중심 내용을 드러낼 것
◦ 궁궐을 의인화하여 표현할 것
◦ 대구의 표현 방법을 활용할 것

① 생활의 공간에서 정치의 중심으로
오백 년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궁궐의 마당
② 꿈꾸는 궁궐의 장식물, 섬세한 조형미
궁궐이 노래하는 조상들의 놀라운 미적 감각
③ '해태'에 담긴 염원, '답도'에 새겨진 소망
궁궐이 이야기해 주는 조선 왕조의 정치적 이상
④ 태평성대를 바라는 '백성', 백성을 위하는 '왕실'
정치적 이상이 담긴 궁궐의 장식물
⑤ 기운차게 달려가는 '해태', 힘차게 날아가는 '봉황'
상상의 세계에서 손짓하는 우리의 궁궐

6. <보기>는 조리 방법과 관련된 어휘의 용례이다. 어휘의 의미 사이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을 추출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ㄱ. 고다: 할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소뼈와 고기를 푹 고아 곰국을 만들어 드렸다.
ㄴ. 데치다: 채소를 데치면 표면이 살짝 익으면서 아삭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다.
ㄷ. 삶다: 국수를 삶을 때에는 물이 넉넉해야 가락이 엉겨 붙지 않는다.
ㄹ. 찌다: 송편을 찔 때에는 끓는 물이 송편에 닿지 않도록 시루의 높이를 조절해야 한다.

① ㄱ, ㄴ: 짧은 시간에 익힌다.
② ㄱ, ㄷ: 물에 재료를 넣어 끓인다.
③ ㄴ, ㄷ: 재료가 무르도록 익힌다.
④ ㄴ, ㄹ: 뜨거운 김을 이용하여 익힌다.
⑤ ㄷ, ㄹ: 국물이 줄어들도록 바짝 끓인다.

7. <보기>의 ㉠ ~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피동'이란 주어가 스스로 행동하지 않고 남의 동작을 받는 것을 말한다. 국어 문장의 피동 표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타동사 어근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붙어서 이루어진 ㉠ 파생적 피동, 용언의 어간에 '-어지다'가 붙어서 이루어진 ㉡ 통사적 피동, 그리고 어휘 자체가 피동의 의미를 띠고 있는 ㉢ 어휘적 피동 등이 있다.

① ㉠: 어디서 음악 소리가 들렸다.
② ㉠: 건물 사이로 하늘이 보였다.
③ ㉡: 이 책상은 나무로 만들어졌다.
④ ㉢: 이제는 계절이 봄이 되었다.
⑤ ㉢: 이번 만우절에도 거짓말에 당했다.

[8 ~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세기 초 갑골문의 발견은 중국 역사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 역사에서 3,000여 년을 잠자고 있던 상(商)나라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 ㉠ 상나라는 왕과 귀족, 평민, 그리고 노예로 구성된 사회였다. 당시에는 귀족만 성(姓)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백성(百姓)'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씨족 사회의 질서를 유지했다. 농업 같은 직접 생산에 참여한 계급은 '소인(小人)'이라고 불렸다. 소인은 일정한 규모의 토지를 점유하고 그 토지를 경작할 수 있었지만 그 대가로 공물을 납부하고 병역의 의무를 졌다. 최하층을 구성하던 계급은 노예였다. 이들은 대부분 전쟁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로 '민(民)'이라고 불렸다. '민'은 소나 양처럼 일종의 재산으로 취급되었고 제사에 희생물로 바쳐지기도 했으며 주인이 사망하면 순장(殉葬)되기도 했다.

상나라를 멸망시킨 ㉡ 주(周)나라에서는 상나라의 '백성'에 해당하는 귀족을 '인(人)', '소인'을 '민(民)', 노예를 '신(臣)'이라고 불렀다. '신'도 상나라와 마찬가지로 전쟁 포로로 구성되었는데 제사나 순장의 희생물로 바쳐지는 사례는 줄었지만 여전히 짐승처럼 취급되었다. 이처럼 주나라에서 '인'과 '민'은 상이한 계층을 가리키는 서로 다른 개념이었다. 전자가 지배층으로서 정치나 제사 등의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부류였다면, 후자는 농업 등의 육체노동을 담당했던 피지배층을 가리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대 중국의 문헌에서 '백성'이나 '인'이란 개념을 '민'이라는 개념과 구별하지 못한다면 많은 오해와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주나라는 '인'과 '민'에게 각각 '예(禮)'와 '형(刑)'이라는 서로 다른 통치 수단을 사용하였다. 주나라에는 지배층 내부에 군주와 신하, 부모와 자식, 형과 동생 간의 위계와 서열에 따라 의복·음식·거주·관례·혼례·상례·제례 등에 적용되는 '예'라는 행위규범이 있었다. '예'는 지배층 내부의 위계질서를 유지하고 분열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반면 '형'은 직접 생산에 참여하던 '민'에게 적용되었던 가혹한 형법으로 피지배층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주나라는 '예'라는 행위규범만으로 조화로운 사회를 이룩했던 이상적인 사회가 아니었다.

주나라는 피지배층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매우 잔혹한 육체적 형벌을 가했다. 『예기』에 따르면 피지배층이 받는 형벌 조항은 3,000가지가 넘었다고 한다. 반면 귀족이 '예'를 어겼을 때 받는 처벌은 귀족 사회 내부의 나쁜 평판으로 인한 수치심 정도의 정신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귀족이 '예'를 어길 경우 주나라는 왜 정신적 처벌만을 내렸던 것일까? 그것은 주나라가 '종법 사회'였기 때문이다. '종법 사회'는 가족 질서나 가족 이데올로기에 의해 국가 질서가 유지되는 사회를 말한다. 따라서 하나의 '거대 가족'이었던 지배층 내부에서는 '예'를 어겨도 가혹한 육체적 형벌을 가할 수 없었다.

8. 위 글을 통해 답을 확인할 수 있는 물음이 아닌 것은?

① 중국 역사에서 갑골문 발견의 의의는 무엇인가?
② 주나라의 종법 사회가 붕괴된 원인은 무엇인가?
③ 상나라에서 전쟁 포로의 사회적 지위는 어떠했는가?
④ 고대 중국 문헌을 읽을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가?
⑤ 주나라에서 지배층의 분열을 방지하는 수단은 무엇이었는가?

9.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① ㉠에서 '소인'은 지배층을, '백성'은 피지배층을 의미했다.
② ㉡에서 '인'은 피지배층을, '신'은 지배층을 의미했다.
③ ㉠과 ㉡에서 '민'이 가리키는 대상은 모두 동일했다.
④ ㉠의 '백성'과 ㉡의 '인'은 모두 정신노동을 담당했다.
⑤ ㉡은 ㉠에 비해 '신'에게 적용하는 '예'가 더 다양했다.

10.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동한(東漢)의 학자 '정현'은 주나라의 '예'를 『의례』, 『주례』, 『예기』에 구별하여 기록하였다. 『의례』에는 관혼상제 등 구체적인 의식이, 『주례』에는 300여 종에 달하는 관직의 임무가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예기』에는 "예는 서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형은 귀족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있어 예의 적용 범위를 알 수 있게 한다.

① '정현'은 주나라에서 '거대 가족'에게는 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겠군.
② 『의례』에서 주나라 지배층의 위계와 서열에 따른 관혼상제의 행위규범을 찾을 수 있겠군.
③ 『주례』에는 정치를 담당했던 주나라 지배층이 관리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이 기록되어 있겠군.
④ 『예기』를 통해 주나라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예'와 '형'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군.
⑤ 『의례』, 『주례』, 『예기』에는 주나라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지켜야 할 행위규범이 모두 기록되어 있겠군.

[11 ~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집도 많은 집도 많은 남대문턱 움 속에서 두 손 오구려 혹혹 입김 불며 이따금씩 쳐다보는 하늘이사 아마 하늘이기 혼자만 곱구나

거북네는 만주서 왔단다 두터운 얼음장과 거센 바람 속을 세월은 흘러 거북이는 만주서 나고 할배는 만주에 묻히고 세월이 무심찮아 봄을 본다고 쫓겨서 울면서 가던 길 돌아왔단다

띠팡*을 떠날 때 강을 건늘 때 조선으로 돌아가면 빼앗겼던 땅에서 농사지으며 가 갸 거 겨 배운다더니 조선으로 돌아와도 집도 고향도 없고

[A]
거북이는 배추꼬리를 씹으며 달디달구나 배추꼬리를 씹으며 꺼무테테한 아배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배추꼬리를 씹으며 거북이는 무엇을 **생각**하누

첫눈 이미 내리고 이윽고 새해가 온다는데 집도 많은 집도 많은 남대문턱 **움** 속에서 이따금씩 쳐다보는 **하늘**이사 아마 하늘이기 혼자만 곱구나

– 이용악, 「하늘만 곱구나」 –

* 띠팡 : '장소'의 중국말. 여기서는 만주를 의미함.

(나) 배를 민다
배를 밀어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험
희번덕이는 잔잔한 가을 바닷물 위에
배를 밀어넣고는
온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의 한 허공에서
밀던 힘을 한껏 더해 밀어주고는
아슬아슬히 배에서 떨어진 손, ㉠ 순간 환해진 손을
허공으로부터 거둔다

㉡ 사랑은 참 부드럽게도 떠나지
뵈지도 않는 길을 부드럽게도

㉢ 배를 한껏 세게 밀어내듯이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는 것이지

㉣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의 흉터
잠시 머물다 가라앉고

㉤ 그런데 오,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여
아무 소리 없이 밀려들어오는 배여

– 장석남, 「배를 밀며」 –

(다) 상(常)해런가* 꿈이런가 백옥경에 올라가니
옥황(玉皇)은 반기시나 군선(群仙)*이 꺼리는구나.
두어라, 오호연월(五湖烟月)*이 내 분(分)에 알맞구나.

[B]
풋잠에 **꿈**을 꾸어 십이루에 들어가니
옥황은 웃으시되 군선이 꾸짖는구나.
어즈버, **백만억창생***을 어느 결에 물으리.

하늘이 이저신 제* 무슨 술(術)로 기워 내었는고.
백옥루 중수(重修)할 제 어떤 **바치*** 이루어 내었는고.
옥황께 사뢰어 보자 하더니 다 못하고 왔구나.

– 윤선도, 「몽천요(夢天謠)」 –

* 상해런가 : 일상이던가.
* 오호연월 : 아름다운 풍경을 말함.
* 이저신 제 : 이지러졌을 때.
* 군선 : 여러 신선(神仙).
* 백만억창생 : 수많은 백성.
* 바치 : 장인(匠人).

11. (가) ~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화자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
② 일상의 경험에서 대상의 의미를 새롭게 끌어내고 있다.
③ 대상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화자의 의도가 드러나 있다.
④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⑤ 자연을 통해 현재의 삶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12.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 (가)를 쓴 것이라 할 때, 작가가 구상했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한성일보 1946년 12월 12일

추위에 떠는 전재(戰災) 동포를 구하자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여 일본 또는 멀리 남북 중국으로부터 자유 독립을 간절히 염원하여 그리운 고국에 돌아와 각기 인척 관계를 찾아 방 한 칸, 또는 공동숙박소, 전재민 수용소, 이나마도 차례에 가지 않아 왜놈들이 파놓은 방공호에서, 또는 한강철교 밑에서, 이것도 차지하지 못하고 거리에서 오늘은 이 집 문전에서 거적을 깔고 살을 에는 열한풍(烈寒風)을 바라보며 한하는 이들 수천 명을 이 참경 앞에 놓고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변명하며 무엇이라고 위로를 하여야 할까?

① 전재민의 현재 처지를 부각하기 위해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자.
② 전재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을 쓰자.
③ 귀국한 전재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대상물을 설정하자.
④ 고국으로 돌아온 전재민의 삶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 공간과 계절적 배경을 설정하자.
⑤ 해방 이후에도 전재민의 고난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가족 3대의 이야기로 구성하자.

13.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 (나) 모두 색채의 대비를 통해 감정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② (가)는 (나)와 달리 영탄적 표현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첫 연의 내용을 끝 연에서 변주하여 시상을 심화하고 있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의성어를 사용하여 생생한 현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나)는 (가)와 달리 반어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4. (나)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배에서 손을 뗀 순간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② ㉡ : 배가 밀려 가는 모습을 통해 사랑이 떠나갈 때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③ ㉢ : 이별의 슬픔을 잊기 위한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④ ㉣ : 사랑이 떠나가고 남은 화자 마음속의 상처를 표현하고 있다.
⑤ ㉤ : 화자가 기대하던 새로운 사랑이 시작됨을 표현하고 있다.

15. [A]와 [B]의 시어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의 '거북이'와 [B]의 '백만억창생'은 화자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다.
② [A]의 '생각'과 [B]의 '꿈'은 화자와 대상 간의 갈등을 보여준다.
③ [A]의 '첫눈'과 [B]의 '바치'는 화자가 기다리는 긍정적 대상을 의미한다.
④ [A]의 '움'과 [B]의 '백옥루'는 화자가 살고 있는 공간적 배경을 나타낸다.
⑤ [A]의 '하늘'과 [B]의 '하늘'은 이상적 세계를 나타낸다.

[16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흔히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연 그럴까? 자음(子音)과 모음(母音)은 소리의 단위이고 이것을 문자로 표현한 것이 자모(字母)이다. '자모(字母)'란 소리 덩어리인 한 개의 음절을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어 표기할 수 있는 낱낱의 글자를 말한다. 따라서 "한글은 자음 자모와 모음 자모를 하나의 음절 단위로 모아 표기한다."라고 해야 정확하다. 예를 들면 한글은 하나의 소리 덩어리인 음절 /밤/을 표기하기 위해 초성 자모 'ㅂ', 중성 자모 'ㅏ', 종성 자모 'ㅁ'을 모아서 '밤'이라고 표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밤/이라는 음절에 조사로 쓰이는 /ㅣ/라는 음절이 결합하면 [밤이]가 아니라 [바미]로 발음된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소리의 층위를 살펴보자. /밤/과 /ㅣ/가 연결되었을 때 [바미]로 발음되는 것은 앞 음절의 종성 /ㅁ/이 다음 음절의 초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어에서 종성이 있는 음절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이 이어질 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를 '종성의 초성화'라고 한다. 하지만 '종성의 초성화'는 소리의 층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문자의 층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이러한 소리의 층위에서 일어난 변화를 문자의 층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우선 소리의 층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여 소리 나는 대로 '바미'라고 표기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표기법을 전통적으로는 '음운론적 표기'라고 부른다. 이 방법은 /바/가 /ㅂ/과 /ㅏ/로, /미/가 /ㅁ/과 /ㅣ/로 이루어져 있다는 '음절 내부 구조'와 /바미/가 /바/와 /미/로 이루어져 있다는 '음절 외부 경계'를 함께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표기 방법은 로마자처럼 음절의 내부 구조와 외부 경계를 드러내지 못하는 표기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음절구조론적 표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표기 방법은 음절 구조가 바뀐 결과를 문자의 층위로 드러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형태소의 원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아 의미 파악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달리 음절 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밤'이라는 원래의 형태를 유지한 채 '밤이*'로 표기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방법을 ㉠'형태음운론적 표기'라고 하는데, 오늘날의 표기 방법은 이 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이러한 표기 방법은 음절 구조가 바뀐 결과를 문자의 층위로 드러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형태소의 원래 모습이 잘 드러난다는 장점이 있다.

*'이'의 'ㅇ'은 초성 자음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모.

16.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자음과 모음은 소리의 층위와 관련 있다.
② 한글은 자모를 음절 단위로 모아서 표기한다.
③ 음운론적 표기는 소리의 층위를 반영하지 못한다.
④ '종성의 초성화' 현상을 문자로도 표기할 수 있다.
⑤ 로마자의 표기 방법은 음절 외부 경계를 드러내지 못한다.

17. 위 글을 바탕으로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니보ᄂᆞᆫ 뇽안현 **사ᄅᆞᆷ이니** 그 아비 ᄐᆡ방이 사오나온 병을 **어더** 거의 죽게 되니 구ᄒᆞ여도 **효험이** 업서 일야의 우더니 **ᄭᅮ메** 즁이 고ᄒᆞ여 닐오되 **ᄲᅢ를 머그면** 가히 됴ᄒᆞ리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① '사ᄅᆞᆷ이니'는 음절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표기이다.
② '어더'는 음절 외부 경계를 드러낼 수 없는 표기이다.
③ '효험이'는 형태소의 원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표기이다.
④ 'ᄭᅮ메'는 음절 내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표기이다.
⑤ '머그면'은 소리의 층위에서 일어난 변화를 반영한 표기이다.

18. 오늘날의 표기법이 ㉠을 채용하는 이유를 추리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글을 읽을 때 의미를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② 소리 나는 순서대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③ 음절 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④ 음절 내부의 구조를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⑤ 음절 외부의 경계를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19 ~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분무기는 물이나 살충제와 같은 액체 물질을 뿜어내는 기구이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물총도 분무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분무기를 사용하여 화초에 수분을 보충하거나, 유리창을 닦기 위한 세제를 뿌리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액체나 기체 같은 유체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보통 분무기'는 이러한 유체와 압력의 관계를 이용하여 용기 속의 액체를 용기 밖으로 뿜어낸다. 이를 위해 '보통 분무기'는 피스톤 펌프의 원리를 이용하여 압력을 ㉠ 조절(調節)하는데, 분무기에 달린 손잡이가 피스톤을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분무기의 손잡이를 잡아 압축시키면 아래 그림 (가)와 같이 피스톤이 안으로 밀리게 된다. 이로 인해 펌프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여 유입 밸브가 닫히면서 액체 ㉡ 유입(流入)이 차단된다. 동시에 유출 밸브가 열려 펌프 내부의 공기가 빠져 나가게 된다. 그리고 분무기의 손잡이를 놓으면 그림 (나)처럼 스프링에 의해 피스톤이 제자리로 돌아가 펌프 내부 압력이 낮아진다. 이때 유출 밸브와 유입 밸브의 개폐는 그림 (가)와 반대가 되어 용기 속의 액체가 펌프 내부로 유입된다. 다시 분무기의 손잡이를 잡아 압축하면 피스톤이 그림 (다)처럼 안으로 밀려 펌프 내부에 차 있던 액체의 압력을 높여 유출관 쪽으로 액체를 밀어 올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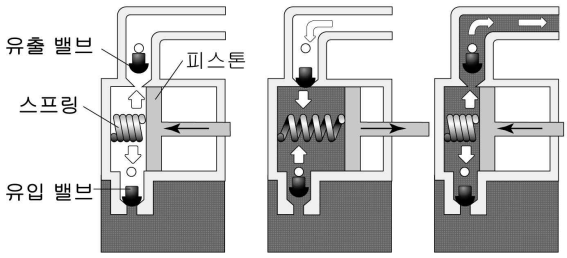


그림 (가) 그림 (나) 그림 (다)

유출관으로 올라온 액체를 작은 ㉢ 입자(粒子)로 분사하기 위해서는 좁은 구멍의 노즐이 필요하다. 노즐의 구멍은 좁기 때문에 액체가 노즐을 빠져 나가기 위해서는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높은 압력에 밀린 액체를 좁은 구멍으로 보내면, 액체는 공기와 부딪치면서 안개처럼 작은 방울로 뿜어진다. 분무되는 양과 분무 형태는 분무기 노즐 내부나 끝 모양, 구멍 크기, 구멍 수, 분사 압력 등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된다.

한편, '압축 분무기'는 기화가 쉬운 가압제를 첨가하여 용기 내의 기체 압력을 높여서 액체를 밖으로 밀어낸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 탈취(脫臭)용 스프레이, 소화기 등이 대표적이다. '압축 분무기'에서 사용하는 액체 가압제는 용기 내에서 기화하여 내부를 고압 상태로 만들고, 분무기의 노즐부를 누르면 용액에 담긴 튜브 입구가 열리면서 압축된 액체를 분사하도록 만든다. 가압제로는 프레온, 아산화질소 등을 주로 사용하는데, 특히 프레온 가스는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 대체(代替) 물질이나 공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19. 위 글에 적용된 전개 방식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ㄱ. 대상의 제작 원리를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ㄴ. 대상과 관계있는 실생활의 사례를 소개한다.
ㄷ. 대상의 작동 원리 및 과정을 분석적으로 설명한다.
ㄹ. 대상이 발전해 온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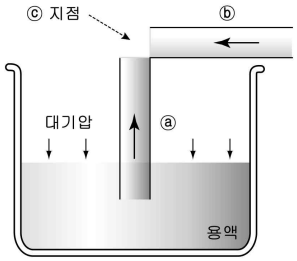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위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노즐의 형태에 따라 분무되는 모양이 달라진다.
② 보통 분무기는 손잡이를 이용하여 압력을 조절한다.
③ 보통 분무기는 유체와 압력의 관계를 이용하여 분무한다.
④ 압축 분무기는 보통 분무기와 달리 분무량이 항상 일정하다.
⑤ 압축 분무기의 가압제 중에는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것도 있다.

21. <보기>는 위 글과 관련된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보기>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두 개의 빨대 ⓐ, ⓑ가 있습니다. ⓐ는 용액에 담그고 ⓑ를 ⓐ에 ㄱ자 모양이 되도록 연결합니다. 그리고 ⓑ에 공기를 빠르게 불어 넣어 ⓒ 지점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 지점의 압력이 용액을 누르는 대기압보다 낮아지면서 용액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공기가 ⓒ 지점을 지날 때의 상황을 위 글과 관련지어 설명해 볼까요?

① ⓐ에서는 그림 (가)에서처럼 액체의 이동이 일어난다.
② ⓐ는 그림 (가)의 피스톤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③ ⓑ에서는 그림 (다)에서처럼 공기의 유입이 일어난다.
④ ⓑ는 그림 (다)의 스프링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⑤ ⓒ 지점의 압력은 그림 (나)의 펌프 내부와 유사한 상태이다.

22.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함.
② ㉡: 액체나 기체, 열 따위가 어떤 곳으로 흘러듦.
③ ㉢: 물질의 일부로서, 구성하는 물질과 같은 종류의 매우 작은 물체.
④ ㉣: 냄새를 빼어 없앰.
⑤ ㉤: 다른 것으로 대신함.

[23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이런 색깔을 다시 내게 할 도리는 없을까요."

최술의 묻는 말에 박고남은 조용히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입을 열었다.

"옛날에 있었던 빛이니 다시 찾을 순 있겠지. 기물의 형태도 다시 옛 모습으로 고칠 수도 있을 게고 ……."

"그러시면 일부러 그런 빛이나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응, 그렇지야 않지 ……."

"그럼 무슨 말씀이신가요."

최술은 박고남의 얼굴을 쳐다보며 그의 뒷말을 기다렸다. 그러나 박고남은 그냥 가만 앉아 있기만 했다. 이때 최술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유약의 비법이 있었다. 대개 화청장이들은 그것이 세습적인 직업이었기 때문에 유약을 만드는 비법을 누구에게나 가르쳐 주지 않고 자기 손(孫)들에게만 물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최술은 혹시나 그런 폐단으로 청자의 색이 변조하게 되었고 또 청자가 지니는 본래의 비색을 잃어버리게 된 동기가 아닌가 싶기도 했다.

"여보게, 이 사람 ……."

장인이 부르는 말에 최술은 꿈속에서 깨어난 것 같은 느낌이었다.

"사기그릇이란 사기장이 취미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세 ……."

"그럼 ……."

"허허, 이 사람, 자네는 국록을 먹는 요에서 일하는 사기장이로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나."

최술은 아무런 반응도 없이 앉아 있기만 했다. 도기를 만든다는 것은 하나에서 열에 이르기까지 도공들의 마음대로 만들어 낼 수는 없었다. 제요직(諸窯直)의 지시에 따라 구워 내는 것이 사실이었다. 제요직에선 조정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기물의 종류나 또는 그 형태와 무늬까지도 지시해 내려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술은 언제든지 제요직에서 내리는 지시에 따른다기보다도 자기 스스로 독창적인 것을 고안하고 만들어 내보려고 애를 쓰기도 했다. ㉠ 물론 그런 것은 불량품으로 낙인이 찍혀 산산조각이 나는 수도 있었고 규격에 맞지 않는다고 누구의 소행이냐고 추궁을 당하면서도 그 버릇만은 버리질 못했다. 말하자면 최술은 그런 것을 만들고 빚을 때가 도공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략>

최술이 광주땅으로 옮겨오면서부터의 꿈은 옛날 송홧골 중턱에서 파내었던 청자 조각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새로운 꿈을 동경하는 의욕 속에 바쁜 하루를 보내었다.

푸른 하늘이 더욱 아름다운 것은 그 위에 흰 구름이 떠 흐르기 때문이다. 고려 사람들은 푸른 하늘의 아름다움은 느꼈어도 흰 구름의 빛남은 알질 못했다. 인간은 하늘의 섭리에 그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늘의 섭리를 지배하는 것은 푸른 하늘이 아니라 흰 구름이다. 구름이 개면 해가 비쳤고 구름이 몰려들면 비를 뿌린다. 풍운(風雲)의 조화야말로 신의 조화요 조물옹의 의지인 것이다. 이 속에 나서 이 속에 살아 이 속에 죽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듯 조화무쌍한 흰 구름, 그렇듯 아름다운 흰 구름…… 최술은 그런 빛의 자기를 구워 내고 싶었던 것이다. 태조가 역성혁명(易姓革命)을 이룩했듯이 최술은 자기의 혁명을 꾀해 보고 싶었다.

"꼭대기에 피도 마르지 않은 사기장이 놈이 무얼 안다고 그 지랄이야."

㉡ 이곳 늙은 도공들은 최술의 의견에 대해 한결같이 이런 욕지거리를 늘어놓으며 누구도 그를 상대하려 들질 않았다. 그럴 때마다 최술은 뜨거운 열기에 눈알이 붉어졌지만 모든 화를 꾹 참아 냈다. 어떤 욕설이 퍼부어져도 최술은 자신의 의지를 굽히려 들질 않았다. 이곳 사기장이들은 그러한 최술을 건방지다고 했다.

㉢ 그는 여러 사기장이들에게 뭇매를 얻어맞기도 했다. 순네의 생각엔 그것이 남편의 외고집의 탓이라고 생각하며 송홧골을 떠나온 것을 슬퍼했다.

"당신의 외고집만 세우려면 어떻게 해요. 고향도 아닌 타향에 와서 ……."

"부질없는 소리 말어 ……."

㉣ 아내에게 무뚝뚝하게 말대꾸하지만 상처를 입고 누워 있는 최술의 마음은 매맞아 입은 상처보다도 더 아팠다. 이런 최술의 외고집도 통하는 날이 있었다. 사옹원에서 내려온 한 관원이 그런 말을 전해 듣고 최술의 전용으로 각령과 가마를 쓰게 하여 그의 소원인 기물을 만들어 구워 내도록 명했다. 관원의 말에 최술의 마음은 설레었다.

체로 친 도토(陶土)를 경안천에 흐르는 냇물을 길어다 이것을 몇 번이고 침전시켰다. ㉤ 물기를 뽑아 태토를 만드는 일에서부터 최술은 남의 손을 빌리지 않았다.

물레질을 하는 최술은 그릇 하나하나에 세심한 마음을 기울였다. 사발, 입기(立器), 탕기(蕩器), 대접, 주전자, 관, 자라병, 사우병(四隅甁), 단지, 항아리, 가지각색의 기물을 빚었다. 그때마다 최술은 몸채와 굽의 조화는 물론 모가지와 어깨의 선…… 그리고 주둥이와 귀와 배와 촉자리 귀때 등에 이르기까지 송홧골에서 빚는다는 것과는 달리 두둠히 살을 입혀 둔하지도 않고 가벼워 보이지도 않게 물레를 돌리며 방망이로 다지고 가리새로 깎아 내었다.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빚기 시작한 기물을 가마문을 열고 끄집어낸 것은 그가 일을 시작하여 꼭 백 날이 되던 늦가을이었다.

여러 가지 기물 중에서도 가장 출중한 것은 투조백자 필통(透彫白磁筆筒)이었다.

그를 희롱하던 사기장이들은 물론 사옹원에서 내려왔던 관원의 일행도 가마에서 꺼낸 기물들을 보곤 놀랐다. 소박하고 묵직하면서도 그것은 태가 있었고 격이 흘렀다. 잡부들에 의해 하나하나 꺼내는 기물들을 바라보고 있는 최술의 표정은 무엇인지 모르게 흡족 못 했다.

그러나 그의 가슴속엔 지금까지 느껴 보지 못했던 희열이 스쳐 흘렀다. 같은 흰 빛이면서 청백과 황백과 담백의 그릇이 구름이 흘러 가는 가마 속에서 나왔다.

– 정한숙, 「백자도공 최술」 –

23.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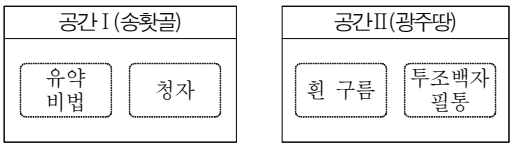
① 외양을 상세하게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을 드러낸다.
② 두 개의 사건을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③ 대화와 요약적 진술을 번갈아 사용하여 사건 전개 속도를 변화시킨다.
④ 시점의 변화를 통하여 동일한 사건에 담긴 다양한 의미를 부각시킨다.
⑤ 빈번한 장면의 전환을 통하여 인물 사이의 고조된 긴장감을 드러낸다.

24. [A]에 나타난 '박고남(장인)'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질문이 반복되는 것을 귀찮아하고 있다.
② 질문자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하고 있다.
③ 질문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④ 질문에 공감하는 뜻을 드러내려 하고 있다.
⑤ 질문에 대해 권위를 내세워 무시하고 있다.

25. <보기>는 위 글의 주요 공간과 핵심어를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① 공간Ⅰ은 기존의 관습을 벗어나려는 인물의 노력이 드러나는 곳이다.
② 공간Ⅰ에서 '유약 비법'의 단절은 '청자'의 변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③ 공간Ⅱ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인물의 욕망이 드러나는 곳이다.
④ 공간Ⅱ에서 '투조백자 필통'은 '흰 구름'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것이다.
⑤ 공간Ⅰ의 '청자'를 뛰어 넘으려는 인물의 지향이 공간Ⅱ에서 '투조백자 필통'으로 나타난다.

26.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관련 없는 것은?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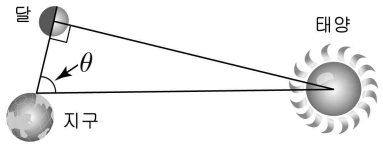
정한숙의 소설에는 사라져가는 전통미를 추구하는 인물이 자주 등장한다. 그는 예술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예술가가 겪는 내면적 갈등 및 세계와의 갈등, 그리고 그 극복의 과정을 그렸다.

① ㉠ ② ㉡ ③ ㉢ ④ ㉣ ⑤ ㉤

[27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인들은 16세기 코페르니쿠스가 처음 지동설을 주장했다고 생각하지만 지동설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다. 지구를 비롯한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생각을 최초로 했던 사람은 기원전 5세기의 필로라우스라고 알려져 있다. 그 뒤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어져 오던 지동설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이가 기원전 3세기의 그리스인 아리스타코스이다.

아리스타코스가 왜 지동설을 주장하게 되었는지는 현재 남아 있는 '태양과 달의 크기와 거리에 대하여'라는 그의 논문을 통해 단서를 얻을 수 있다.



그는 위 그림과 같이 달이 정확하게 반달일 ㉡때 지구와 태양과 달이 직각을 이룬다는 점에 착안하여, 상현이나 하현이 되는 날마다 오후 6시경에 달-지구-태양의 각도를 측정하였다. 그가 측정한 θ각은 87도 내외로 측정 때마다 달랐다. 그래서 그는 87도라는 평균값을 가지고 거리비를 계산해 보았더니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의 19배 정도가 되었다. 그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일식 때 태양과 달의 겉보기 크기가 같은 것은 태양이 달보다 19배 정도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또 월식 때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동안의 시간을 측정하여 달의 크기가 지구의 4분의 1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태양과 달의 크기를 계산한 방법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전제해도 쓸 ㉢수가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그가 내린 결론은 태양이 지구보다 더 큰 것이었으므로, 큰 태양이 작은 지구 둘레를 돈다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태양을 중심에 두고 행성들의 순서를 올바로 배열한 후, 태양이나 별들은 정지해 있고, 지구를 비롯한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낮과 밤이 생기는 ㉣것은 하늘이 움직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구가 하루를 주기로 자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당대 사람들은 이러한 아리스타코스의 주장을 철저하게 외면했다. 사람들이 아리스타코스의 천문 체계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까닭은 그의 생각이 당대의 상식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지구가 하늘에 떠 있는 태양보다 작을 ㉤리 없으며, 지구가 움직인다면 인간이 그것을 느끼지 못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당대 사람들은 모든 물체는 우주의 중심을 향해 떨어진다고 생각했다. 만약 아리스타코스의 말이 맞다면 물건들은 태양을 향해 날아가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대 사람들이 아리스타코스의 주장을 배척한 가장 강력한 근거는 오늘날 '연주시차'라고 부르는 현상이 관측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만약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고, 별들이 고정되어 있다면 관측자는 항상 다른 위치에서 관측을 하게 된다. 그러면 관측되는 별들의 모습도 다르게 보여야 된다. 그러나 당대의 관측기술로는 그러한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 결과 현대의 천문학 지식에 부합하는 그의 천재적인 생각은 코페르니쿠스가 다시 제기할 때까지 묻히고 말았다.

27. 위 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고대의 코페르니쿠스, 아리스타코스
 – 시대의 인정을 받지 못한 위대한 천문학자
② 아리스타코스의 위대한 업적
 – 획기적인 방법으로 달까지 거리 측정
③ 천동설과 지동설의 경쟁
 –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던 지동설
④ 천재적인 천문학자 아리스타코스
 – 행성들의 순서를 정확히 배열
⑤ 지동설의 오랜 역사
 – 면면히 이어진 과학적 전통

28. 아리스타코스의 주장에 대한 당대 사람들의 반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구가 움직인다면 우리가 느끼지 못할 까닭이 없다.
② 지구가 움직인다면 관측되는 별들의 모습도 달라야 한다.
③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면 물건들은 하늘로 날아가야 한다.
④ 지구를 중심에 놓으면 태양 크기의 계산 결과는 달라진다.
⑤ 하늘에 떠 있는 태양보다 지구가 작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29. <보기>를 읽고 위 글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오늘날의 정밀한 과학 기술로 측정한 결과 아리스타코스가 측정했던 θ각은 89도 51분이다. 이 결과를 아리스타코스의 방법에 대입하면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382배가 된다. 이렇게 오차가 생긴 이유는 당시에는 관측 도구의 수준이 낮았고, 시간 측정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달이 정확하게 적도 위 궤도를 지날 때 적도 지방에서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 장소에 따른 오차를 감안하지 못한 점도 있다.

① 아리스타코스가 계산한 달의 크기는 실제 달의 크기와 차이가 있겠군.
② 아리스타코스의 방법을 이용하면 태양의 크기는 달의 382배 정도 되겠군.
③ 아리스타코스가 정밀한 관측을 했다면 행성의 배열 순서가 달라질 수 있었겠군.
④ 아리스타코스가 측정한 θ각이 유동적이었던 데는 측정 장소에 따른 오차도 있었겠군.
⑤ 아리스타코스가 계산한 지구와 태양의 크기 비율은 θ각을 측정한 결과에 따라 다르겠군.

30. ㉠~㉤ 중, <보기>의 설명과 관련이 없는 것은?

<보 기>

명사 중에는 반드시 그 앞에 관형어가 수식해야 문장에서 쓰일 수 있는 것이 있다. 따라서 이 말들은 문장의 첫머리에는 쓸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⑤ ㉤

[31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화가 겨우 정신을 차려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모든 군사는 창검을 뽑아서 저 요괴를 잡으라."
연이어 재촉하니 군민이 겨우 정신을 차려 일시에 고함을 지르고 나무를 베니, 요괴 둘이 땅에 떨어지니 길이가 한 발이나 되는 금빛 같은 여우였다. 군민이 화살과 창검으로 그 짐승을 죽이고 정신을 차려 원에게 사례하기를,
"이런 요괴가 **옵중**에 있어 종전에 커다란 변란이 있사옵더니, 성주의 명감신기(明鑑神奇)가 이와 같사오시니 이제는 태평을 누리올지라. 어찌 알았으리오? 천신이 강림하여 여러 원님의 원수를 갚으셨도다."
하였다. 문득 보고하기를
"죽은 여우가 숫여우뿐입니다."
하였다.
이화가 실성할 정도로 크게 놀라서 돌아와 이여백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지휘로 인하여 여우를 잡았으나 암여우를 잃었으니 장차 어찌하리오?"
이여백이 매우 놀라서 말하기를,
"당초에 너에게 하나를 잃으면 커다란 환란이 있으리라 하였는데, 암여우를 잡지 못하였으니 나는 아무 곳으로든 피하려니와 너는 3년 내에 대국에 가서 죽으리라."
하고 하직하고 없어졌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니, 이화가 서늘한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여 밤이면 심히 불안하여 취한 사람처럼 바보처럼 지냈다.

<중략>

이화가 나라를 하직하고 발행하여 3일이 되어 **중원**에 이르러 홀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문에 기대어 슬픈 생각을 진정하지 못하고 탄식하고 오열하며 하늘을 우러러 기원하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이화를 불러 안부를 물었다. 이화가 놀라고 의혹스러워하며 대답하기를,
"캄캄한 밤에 누가 나를 은근히 불러 묻느냐?"
공중에서 대답하기를,
"나는 이여백이니 네게 이런 일이 있을 줄 먼저 헤아린 바이라. 참혹하여 오지 않을 수 없음이로다."
이화가 반갑고 기뻐서 대답하기를,
"오늘 밤에 찾아온 것은 진정 너의 뜻이라. 살아서나 죽어서나 신의가 있음을 알 만하도다. 과연 그대의 영혼이 이와 같음을 믿지만 나는 장차 어찌해야겠느냐?"
이여백이 위로하기를,
"내가 차차 너의 살아날 길을 이르고자 함이니 근심을 그치고 자세히 들으라."
이화가 감사함을 이기지 못하는데, 이여백이 말하기를,
"내일 발행한 지 반나절이 못되어 비가 와서 여차여차한 집에 들어가면 보라매가 있을 것이니 값을 헤아리지 말고 사 가지고 가라. 대국에 이르러서는 황제가 반드시 옷을 벗고 들어오라 할 것이나 죽기를 작정하고 옷을 벗지 말고 그 매를 소매 속에 넣고 궁궐에 들어가 매를 내 놓으면 그대가 살 계교가 족히 될 것이요 공명도 얻을까 하노라."
이화가 매우 기뻐하며 소리 죽여 말하기를,
"바라지도 않았는데 나라 바깥에까지 이르러 은근히 살 길을 두 번씩이나 가르쳐 주니 은혜가 진실로 [㉠](이)라."

하고, 다른 세상에서 은혜 갚기를 기약하고 서로 이별하였다.

명일에 길을 떠나 반나절이 못되어 과연 벼락이 치며 비가 심하게 내렸다. 이화가 하늘을 우러러 감사해 하며 말하기를,

"이여백의 점치는 재주가 이와 같이 신기하도다."

하고 마을을 찾으니 과연 이여백이 이르던 집이 있었다. 이화가 기뻐하며 그 집에 들어가 주인에게 불을 구하여 옷을 말려 입고, 두루 살펴보니 조그만 [보라매]가 있었다. 이화가 사기로 작정하고 크게 기뻐하며 주인을 청하여 묻기를,

"저 매가 주인의 것이냐?"

주인이 대답하기를,

"우리에게 3대째 내려오나니, 저 매가 사냥을 잘하여 매일 십여 마리를 잡으니 저 매로 평생 생계를 하매 귀하게 여기나이다."

이화가 말하기를,

"내가 젊어서부터 매를 좋아하였는데, 이 매를 보니 평생 원하던 바이라. 값을 깎지 않을 것이니 내게 팔라."

주인이 대답하기를,

"이것을 팔면 생계가 끊어질 것이니 팔지 못하겠소이다."

이화가 은자 천 냥을 주며 말하기를,

"팔기가 비록 어렵겠지만 내가 꼭 사 가고자 하노라. 객중의 수회(愁懷)를 위로하고 본국에 돌아갈 때 다시 돌려 달라 한들 무엇이 어려우리오?"

주인이 그 간절함을 보고 감동하여 파니, 이화가 매우 기뻐하며 그 매를 가지고 중원에 이르러 황제께 뵈옵기를 아뢰었다.

귀비가 옆에 모시고 앉았다가 고하기를,

"조선 복색을 다 벗고 들어오라 하소서."

상이 옷을 벗고 들어오라 하시니, 사관이 나아가 웃옷을 벗고 들라는 황제의 명을 일렀다.

이화가 눈을 부라리고 꾸짖기를,

"나는 조선 예의국(禮儀國) 사람이라. 조그만 존전(尊前)에도 옷을 벗고 뵙는 일이 없거늘 하물며 황제 만승지전(萬乘之前)에 옷을 벗고 뵙는 도리가 있으리오?"

사관을 물리치고 점점 나아오니 귀비가 겁을 내어 말하기를,

"이화가 저렇듯이 황명을 거역하니 지난날 꿈속의 일을 생각사오면 어찌 흉악하지 아니하리이까? 빨리 장사를 시켜 옷을 벗기고 죄를 물으소서."

황제가 그 말을 좇아 장사로 하여금 들어오는 문을 막고 옷을 벗겨 잡아들이라 하시니, 장사가 일시에 문을 닫고 옷을 벗기려 하였다. 이화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비록 황상의 명령이 있으나 죽을지언정 옷은 벗지 못하리라."

하고 손으로 모든 장사를 밀치고 정전에 들어갔다.

정전에 들어가니 황제가 귀비와 함께 앉아 계시거늘, 이화가 황상께 여덟 번 절하고 머리를 숙인 후 문득 소매에서 매를 내놓았다. 매가 바로 귀비의 머리에 날아가 앉아 백호와 두 눈을 쪼아 먹으니 귀비가 변하여 황금 같은 여우가 되었다. 황제가 대경실색하여 좌우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우를 끌어내라 하고 겨우 정신을 진정하여 이화를 나아오라 하고 손을 잡고 연고를 물으셨다.

이화가 전후사연을 자세히 주달하니, 황제가 차탄(嗟歎)하고 상심하여 참담해 하셨다. 황제는 귀비가 여우에게 죽은 것을 슬퍼하여 여우의 주검을 조각내어 귀비의 신위(神位)를 위하여 제문 지어 제하셨다. 그리고 좌우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이화의 신기한 도술이 아니었던들 거의 종묘사직을 보전하지 못하고 천하 강산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감을 면하지 못할 뻔하였도다."

– 작자미상, 「이화전」 –

31.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화'는 '군민'을 지휘하여 '요괴'를 잡도록 했다.
② '주인'은 마음을 바꾸어 '이화'에게 보라매를 팔았다.
③ '이여백'은 '이화'의 처지가 측은하여 살 길을 알려 주었다.
④ '황제'는 '이화'에게 사연을 듣고 그의 공을 높이 평가하였다.
⑤ '군민'은 '요괴'의 정체를 알려준 '이여백'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32. 위 글의 대결 구도를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대결Ⅰ	읍중
	이화 ↔ 요괴

↓

대결Ⅱ	중원
	이화 ↔ 암여우

① 대결Ⅰ, Ⅱ에서 이화는 동일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다.
② 대결Ⅰ의 결과로 인해 대결Ⅱ가 예측된다.
③ 대결Ⅰ의 요괴와 달리 대결Ⅱ의 암여우는 권력자를 이용한다.
④ 대결Ⅰ에서 불완전한 승리를 거둔 이화는 대결Ⅱ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다.
⑤ 대결Ⅱ의 중원에서와 달리 대결Ⅰ의 읍중에서는 비현실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33. [보라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건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② 세태의 변화를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③ 인물을 강하게 단련시키는 역할을 한다.
④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⑤ 사건의 전후 관계를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34. ㉠에 들어갈 한자성어로 적절한 것은?

① 각골난망(刻骨難忘)
② 구사일생(九死一生)
③ 오매불망(寤寐不忘)
④ 인과응보(因果應報)
⑤ 천재일우(千載一遇)

[35 ~ 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상 이거 좀 드세요. 맛이 희한한데… 고수워요.
현철 뭐야 이게?
사람들 팝… 콘이지요…….
상상 옥수수를 처음 따봤어요……. 옥수수잎을 그렇게 다듬는 거… 줄기를 그렇게 여며 보관해서… 겨울을 난다는 거… 몰랐어요. 옥수수도 알이 알차요. 그거 그렇게 따 본 것도 처음이지요.
현철 문상상… 무슨 소리하는 거야?
상상 처음엔 조금 무서웠는데 인민군하고 한 땅덩이 안에서 같은 일을 해 본 것도 처음이구요…….
현철 문상상…….
상상 며칠만 더 해주면 여기 사람들 가을걷이는 다 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어차피 갈 곳도 없잖아요…….
현철 문상상.
촌장 그게 무슨 얘긴가 지금…….
상상 산 아래로 내려가도 어차피 아무 데도 못 가잖아요…….
현철 이눔의 새끼!!!!

현철, 상상을 두들겨 팬다. 그걸 치성이 말리고… 현철을 눕힌다. 현철, 바닥에 있는 호미를 집는다.

현철 그래, 다 죽여 버리겠어…….
치성 후후… 그래… 뭐이 좀 의심쩍었지……. 적이 많구만… 동무, 사연은 모르겠지만 등 돌린 곳이 많아…….
현철 더러운 빨갱이 새끼…….
치성 남조선 장교 치곤 입이 걸구만……. 처음부터 그래 봤어. 비행기에서 추락한 미군 장교를 왜 안 데리고 갈까? 응? 이 아이 데려가면 훈장감인데 말이지? 또 말해줄까? 멍청한 소위 동무… 대열 찾아가는 군인은 절대로 산 위로 안 올라오지……. 우리 같이 쫓기는 놈들이 아닌 이상… 산 위에 있는 본대는 없다……. 군사학 안 배웠네… 기본이야 그거이…….
현철 ㉠ 시끄러워… 빨갱이 새끼…….

현철, 달려든다. 치성, 그를 제압하며 눕힌다. 그러고는 목을 조아리다 결정타를 날리려는 순간…

작가에게 쏟아지는 불… 덩이… 무대 위의 상황은 정지된다.
지금부터는 극이 설정한 이원의 공간이 무너지고 서사적 양식과 극장의 양식이 극을 움직인다.

작가 아버진… 여기까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이 이후의 얘긴 제가 만들어 낸 것이죠. 이 [사진]의 모습만을 생각하며 그려 보는 저의 상상이죠.

무대가 통합된다.

촌장 (갑자기) 멈추시오!!!!

치성이 멈춘다. 작가를 포함한 모두가 촌장을 본다.

촌장 뭐가 좀 이상합니까? 선상님…….
작가 (관객을 보고) 제가 만들어 낸 인물이니 저와 얘길 나눌 수도 있지요. (촌장을 다시 보곤) 아니 뭐 꼭 이상하다기 보단…….
촌장 여하튼 싸움을 말리긴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달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혼자 다 하시려고 그러세요?
촌장 니가 말릴래? 응식이가 말릴래? 아무래도 나이 많은 내가 이걸 말리는 게 순리 아니겠니?
노모 그렇게 따지면… 판 정리는… 응……?
촌장 어머니… 어머니는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데… 또 난 촌장 아닙니까?
마님 ㉡ 자꾸 촌장, 촌장 하시는데… 이거 뭐 투표해서 뽑은 촌장도 아니고… 당신 아버지가 벼슬자리 좀 있었다고… 어거지로 물려받은 자리 가지고… 너무 힘주시네……. 그리고 작가 선생님, 말이 나왔으니 하는 얘긴데… 중요한 대목은 왜 꼭 남자가 합니까?
촌장 ㉢ 허허… 생각을 해 보시오. 지금 이 양반이 이렇게 살기 뻗친 눈으로 사람 하나를 죽이는데… 아녀자가 꽥꽥 된다고 눈 하나 깜짝 하겠소?
치성 근데요… 저 사실… 죽일 생각은 없거든요……. 그냥 겁만 줄려는 거니까… 제가 알아서 그냥… 뭔가 딱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작가 뭔가를 딱 하다니요?
치성 그러니까 작가 선생 의도대로 그 사진의 풍경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요?
작가 그거야… 그렇지만.
치성 ㉣ 그러면 내가 딱 이렇게 내려치려다가… 이렇게 말하는 기지요. (연기한다.) 내래, 사실 죽일 생각은 없어……. 우리는 한민족 아니갔네? 사진이나 한 장 박자우!

사진 대열로 가려 한다.

작가 저기 원위치 하시고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시면… 얘기가 좀 이상해지고요……. 진정들 하시고…….
동구 ㉤ 근데… 사실 이런 장면일수록 의외의 인물이 해결하는 것이 더 폼 나지 않을까 하네……. 어이, 나같이 어린 것이 이 순간을 감동과 놀라움으로 돌파하는 것이 더 찡할 거 같은데… 생각 좀 해 봐…….

모두… 동구를 이상한 듯 본다.

동구 ……얘, 내 아들이에요. 그잖아?
작가 근데… 아부지…….

다들 수긍한다. 스미스가 작가에게 와서 뭐라 얘기를 한다. 작가, 한참 듣다가… 무반응으로……

작가 아무튼… 긴장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각자의 반응이 있거든요……. 제가 기술하는 대로 일단은 가 보시고… 그게 맘에 안 들면… 뭐 또 다시 쓰면 되는 거니까……. 여하튼 가장 중요한 건… 이 사진의 결과를 향해 이 이야기는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표현철 소위, 자리로 좀…….

– 장진, 「웰컴 투 동막골」 –

35. 위 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상상’은 자신의 생각을 ‘현철’에게 강요하고 있다.
② ‘현철’은 ‘상상’의 태도를 불만스럽게 여기고 있다.
③ ‘치성’은 ‘현철’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문제 삼고 있다.
④ ‘달수’는 ‘촌장’이 마을 사람들을 이끌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
⑤ ‘노모’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36. <보기>의 ⓐ~ⓔ 중, 사진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 희곡에서 사진은 ⓐ‘작가’의 아버지가 경험한 어린 시절의 한 순간을 포착하고 있으며 ⓑ사진 속의 인물들과 ‘작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작가’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근거로 쓰이며 ⓓ 인물들을 통해 최종적으로 만들어 내고자 하는 이야기의 결과물이 된다. 또 ⓔ사진을 찍을 때까지 인물들이 보여줄 구체적 행동을 관객들이 파악할 수 있게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37. ㉠~㉤에 대해 연기 지시를 할 때, 지시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치성’을 향해 공격할 자세를 취하며 격앙된 어투로 대사를 하세요.
② ㉡: ‘촌장’에게서 ‘작가’에게로 시선을 옮기며 불만스러운 어투를 유지하세요.
③ ㉢: 손가락으로 ‘치성’을 가리키면서 ‘마님’에게 답답하다는 어투로 대사를 하세요.
④ ㉣: 어투에 변화를 주며 대사를 한 후 사진을 찍으려는 곳을 향해 주세요.
⑤ ㉤: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며 어린 아이다운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는 어투로 대사를 하세요.

38. 위 글을 <보기>와 같이 나타냈을 때,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장면의 흐름

장 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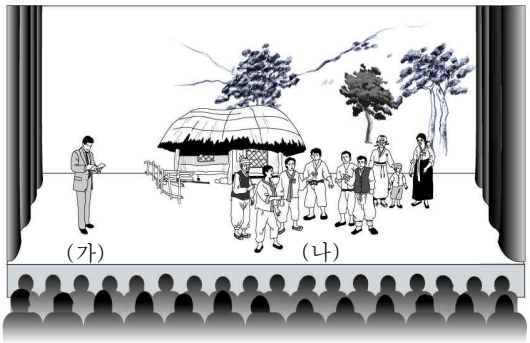
작가에게 쏟아지는 불… 덩이…

장 면 2

무대가 통합된다.

장 면 3

무대 구성



① 장면 1: 관객들은 (가)와 (나)를 다른 공간으로 인식하겠군.
② 장면 2: (나)의 배우들은 일시적으로 행동을 멈추겠군.
③ 장면 2: 관객들은 (가)의 배우를 통해 ‘장면 1’과 ‘장면 3’의 차이점을 알 수 있겠군.
④ 장면 3: (나)의 배우들이 관객들과 대화할 때 (가)의 배우가 개입하겠군.
⑤ 장면 3: (가)와 (나)는 공간의 통합뿐 아니라 시간의 통합도 이루어지겠군.

[39 ~ 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가 간의 경제 거래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래는 국제무역이다. 각 나라의 정부는 무역 활동에 개입하지 않고 자유방임의 입장을 취할 수도 있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수입을 규제하거나 수출을 지원하는 등 무역에 개입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수입을 규제할 수 있을까?

수입 규제 수단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 관세와 ㉡ 수입 수량 할당이다. 관세란 수입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관세가 부과되면 해당 상품의 국내 가격이 상승하여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입량도 감소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농산물을 관세 없이 자유롭게 수입하다가 정부에서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자. 그러면 수입 농산물의 국내 가격은 관세를 더한 만큼 높아져 소비자들의 수요량은 감소한다.

[A] 수입 수량 할당은 일정 기간의 수입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자유무역에서는 국내 생산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부족한 만큼을 수입할 수 있다. 이때의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되고 시장 거래량은 수요량과 일치한다. 그런데 수입 수량을 제한할 경우에는 수입이 자유로운 경우보다 수입량이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포도주의 국내 생산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생산량을 늘리거나 초과수요만큼 수입을 해야 한다. 그런데 국내 생산량에 변함이 없고 수입도 일정량만 할 수 있다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 국내에서의 포도주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것은 수요량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수입 수량 할당이 적용되거나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 상품의 국내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입 상품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는 한편 해당 품목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이때 수입 상품의 가격 상승분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수입이 되는 반면에 수입 수량을 할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업자의 이윤이 된다.

한편 현실 경제에서는 관세를 인하하고 수입 수량 할당을 완화하는 경우가 많다. 가계나 기업의 경우는 소득이 지출보다 많은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가 경제에서는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국제 거래에서도 흑자가 바람직하다. 수출이 잘되어 생산이 늘면 고용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흑자는 국내 경기를 과열시키고 물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고 거래 상대국과의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국가의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39. 위 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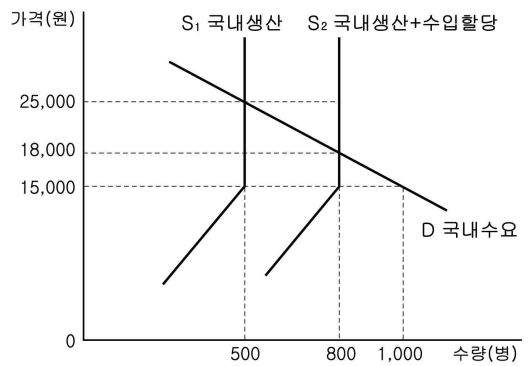
① 정부가 수입을 규제하는 정책을 펼 경우에 수입 상품의 가격 상승은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겠군.
② 정부가 수입을 규제하고 수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늘린다면 국제 거래 상대국과의 마찰을 없앨 수 있겠군.
③ 국제 거래에서 장기적인 흑자를 기록한다면 국내 상품의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물가가 안정되겠군.
④ 무역 활동 가운데 정부가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은 미리 정해져 있겠군.
⑤ 수출에 대해서는 자유방임의 입장을 취하는 나라가 더 많겠군.

40. 위 글을 통해 ㉠과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은 ㉡에 비해 수입 억제 효과가 크다.
② ㉡은 ㉠에 비해 수요량 감소 효과가 크다.
③ ㉡이 ㉠보다 현실 경제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다.
④ ㉠과 ㉡ 모두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⑤ ㉠과 ㉡ 모두 가격 상승에 따른 이윤을 정부가 얻게 된다.

41. <보기>는 [A]에 제시된 포도주의 수요 및 공급에 따른 가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자유무역에서 시장가격은 15,000원, 시장거래량은 1,000병임.
* 현재 가격은 18,000원임.

① 포도주 가격이 25,000원이 되면 공급량은 현재보다 늘어난다.
② 포도주 수입 할당량을 줄인다면 S_2는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③ 현재 포도주의 수입량은 가격에 상관없이 300병으로 한정되어 있다.
④ 포도주를 전혀 수입하지 않는다면 시장 가격이 25,000원에서 형성된다.
⑤ 포도주의 수요가 일정하다면 수입 할당량을 늘릴 경우 가격은 18,000원보다 하락한다.

[42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전주의 예술관에 따르면 진리는 예술 작품 속에 이미 완성된 형태로 존재한다. 독자는 작가가 담아 놓은 진리를 '원형 그대로' 밝혀내야 하고 작품에 대한 독자의 감상은 언제나 작가의 의도와 일치해야 한다. 결국 고전주의 예술관에서 독자는 작품의 의미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일 뿐이다. 하지만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존재는 결국 독자이다. 특히 현대 예술에서는 독자에 따라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여긴다. 바로 여기서 수용미학이 등장한다.

수용미학을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은 야우스이다. 그는 "문학사는 작품과 독자 간의 대화의 역사로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작품의 의미는 작품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에 의해 재생산되는 것임을 말한 것이다. 이로부터 문학을 감상할 때 작품과 독자의 관계에서 독자의 능동성이 강조되었다.

야우스에 의해 제기된 독자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이저이다. 그는 독자의 능동적 역할을 밝히기 위해 '텍스트'와 '작품'을 구별했다. 텍스트는 독자와 만나기 전의 것을, 작품은 독자가 텍스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의미가 재생산된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저는 텍스트에는 '빈틈'이 많다고 보았다. 이 빈틈으로 인해 텍스트는 '불명료성'을 가진다. 텍스트에 빈틈이 많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독자의 개입에 의해 언제나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텍스트가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독자 스스로 빈틈을 채우는 '구체화 과정'이 필요하다. 가령, 시에 '갈색 커피 잔'이 나온다면, 이 잔은 색깔만 가지고 있을 뿐 크기, 무게, 모양 등은 정해져 있지 않다. 반면 실재적 대상으로서 커피 잔은 무한한 속성을 갖고 있고 그 속성들은 모두 정해져 있다. 결국 텍스트에는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마련이며, 이 빈틈은 독자가 스스로 채워 넣어야 할 부분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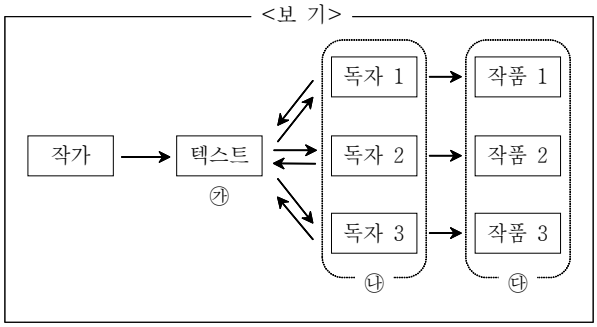
여기에서 이저의 독특한 독자관이 나온다. 이저는 텍스트 속에 독자의 역할이 들어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독자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지는 ㉠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독자는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텍스트의 내용과 형식에 끊임없이 반응한다.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독자는 작품을 재생산한다. 텍스트는 다양한 독자에 따라 다른 작품으로 태어날 수 있으며, 같은 독자라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른 작품으로 생산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텍스트와 독자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이저는 작품의 내재적 미학에서 탈피하여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42. 위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① 고전주의 예술관이 등장한 배경
② 고전주의 예술관에서 독자의 위상
③ 수용미학에서 작품과 독자의 관계
④ 수용미학과 이전 예술관의 차이점
⑤ 수용미학에서 작품의 재생산 방법

43. '이저'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① ㉮는 빈틈으로 인해 의미가 정해져 있지 않다.
② ㉯가 수행할 구체적 역할은 미리 결정되어 있다.
③ ㉯는 ㉮가 제공하는 내용과 형식에 끊임없이 반응한다.
④ 동일한 ㉯일지라도 시·공간에 따라 ㉰는 달라질 수 있다.
⑤ ㉯의 개입 여부에 따라 ㉮와 ㉰가 구별된다.

44. 위 글을 <보기>의 대화에 적용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학생 1 : 박목월은 '나그네'에 대한 자작시 해설에서 이 시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얼을 표현했다고 썼어. 나는 시를 감상할 때 시인의 생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학생 2 : 꼭 시인의 생각에 맞추어 시를 감상해야 할까? 나는 나그네의 모습을 통해 자유로운 삶을 느꼈어.
학생 3 : 그래? 난 이 시의 '남도 삼백 리'를 자전거로 여행한다면 얼마나 걸릴까 생각해 보았어.

① 학생 1은 작가의 의도와 일치하는 감상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군.
② 학생 2, 3은 각자의 방식으로 텍스트를 구체화하고 있군.
③ 학생 1의 관점에서는 학생 3의 감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겠군.
④ '야우스'라면 학생 1보다 학생 2를 능동적인 독자로 생각하겠군.
⑤ '이저'라면 작품의 의미를 잘 파악한 학생 1의 감상을 높게 평가하겠군.

45. 문맥상 ㉠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① 개정(改定)되어 ② 고정(固定)되어 ③ 선정(選定)되어
④ 추정(推定)되어 ⑤ 판정(判定)되어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